

화순군, 전국 최초로 민원실 팀장 전원 민원창구 전면 배치

군민에 한층 더 다가서는 행정서비스 제공 행복민원과 팀장 8명 전부 민원창구로 배치 신임 구복규 화순군수의 군정 철학 담긴 시책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민선 8기를 맞아 군정 민원실 창구에 팀장을 전면 배치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화순군뿐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민원창구에 신규 직

원을 배치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화순군은 민선 8기를 맞아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군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민원과 팀장 8

명 전부를 민원창구로 배치했다. 팀장들은 다년간의 근무 경험으로 민원응대와 업무처리에서 능숙하게 대처가 가능해 군민이 훨씬 더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팀장 민원창구 전면 배치는 전국에서 화순군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에게 격이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민선 8기 신임 구복규 화순군수의 군정 철학이 담긴 시책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팀장 민원창구 배치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신의 한 수’로 새로운 화순에서 더 행복해질 군민을 위해 창구에서 군민 응대에 최선을 다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할 민원실을 만들겠다”며 “민선 8기 군정 슬로건인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군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실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남호경 기자

영광, ‘여름 불청객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에서 식중독 예방교육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 교육과 연계해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개 읍면의 33개소 모형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여름철에 흔히 발생하는 식중독 사례·개인위생관리

를 주요내용으로 교육했고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용 행주 1천155개를 배부했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으로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완전히 익혀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칼·도마는 육류, 생선, 채소·과일용 구분해서 사용하기 ▲식재료는 깨끗이 세척하고 주방기구는 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이 있다.

특히, 손 씻기·음식 익혀 먹기·끓

여 먹기 요령만 잘 실천해도 식중독의 90%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을 통해 음식점, 카페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식중독 컨설팅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 차단하며 지난 19일에는 터미널 주변 등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군민들에게 식중독 예방수칙을 홍보했다.

/이정률 기자

장성 제2기 청렴원정대 출범

장성군이 제2기 청렴원정대 출범식을 갖고 ‘청렴한 장성’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1~4년차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렴원정대는 장성군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모임이다.

선배 공무원과 팀을 이뤄 조직문화 개선과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지난해 4월 처음 출범한 1기 청렴원정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계획된 일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2기 청렴원정대는 일상 회복에 접어들 만큼 활발한 활동이 예상된다.

출범식을 찾은 김한중 장성군수는 “2기 청렴원정대가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며 “저부터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최근 3년간 3~4등급에 머물렀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민선8기 목표로 삼고 있다.

군은 청렴원정대와 더불어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도입 ▲자체청렴도(내부) 평가 ▲찾아가는 청렴실천 간담회 ▲청렴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 중이다. /유광중 기자



나주시는 최근 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 개최

나주시는 최근 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 및 보육 교직원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영유아 권리 존중’, ‘아동학대의 유형별 행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대응법’ 등을 다뤘다.

교육과 더불어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육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처우 개선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를 마련해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

나혜성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번 교육이 변화하는 보육수요에 맞춰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함양과 직무 스트레스 완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자녀를 마음 편히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는 행복을, 부모는 안심을, 교사는 보람을 얻는 나주시 보육 정책을 구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기자

담양, 3기 정원관리사 가든서포터즈 성료 정원관리사 교육 통한 주민주도 마을관리 기대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6월 14일부터 진행한 “2022년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인 ‘정원관리사 프로그램 가든서포터즈 3기’(이하 정원관리사 프로그램)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담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이 사업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직접 마을정원을 만들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원관리사 가든서포터즈’ 기초교육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지역 내 정원 전문가를 초빙해 총 5회에 걸쳐 ▲정원의 이해 ▲마을정원사의 역할 ▲국내외 사례를 통한 정원분석 ▲정원 식물 및 재료의 이해 ▲마을정원

만들기 실습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마을정원사 역할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민간정원 2호 ‘죽화경’을 견학하며 마을정원사의 역할과 필요성, 식재수종의 특징을 통해 지역에 맞는 꽃과 나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한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 정원사에 대한 이해와 도시재생사업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앞으로 담양읍의 정원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족감을 보였으며,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주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진성 기자

무안군

청정갯벌 무안갯벌낙지

낙지의 고장!
무안을 말하다...